제 12대 총여학생회 선거 '로그인 연세총여' 선본 정책팀(생각맡) 평가서

보내는 사람: 운 & etc
볼 사람: 모든 선본인

하나. 생각맡에서 한 일

· 선거 이전
기조, 모토 · 슬로건, 정책과 공약을 생산하기 위한 회의를 밤샘도 불사하며 빡시게(일단 시간상으로는) 하였음
· 선거 중
1 · 2차 리플렛, 자료집 만들기
연세 춘추 기사작성, 공명 · 여명 선본의 이의제기에 대한 해명자보 쓰기, 선거게시판 글 작성
정책간담회 준비(했었나?^^;)

말하자면 생각맡은 선거에 필요한 생각들을 회의를 통해 나누고 정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글들을 썼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글을 청탁하기도 하였다.

둘. 평가와 반성

우선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 월등해서 이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정책 중심으로 평가되지 않는 선거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책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어가지 못한 탓도 있다고 본다. 전반적으로 생각맡의 일은 바쁜 일정에 쫓겨 미처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진행된 감이 있다. 특히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는 기한에 맞춰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일을 해서 넘기기에 바빴다. 이 과정에서 각 업무의 기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글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날림으로 진행된 일의 대표적인 예가 리플렛이며, 특히 2차 리플렛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1차도 별 차이 없다) 원래 2번째는 신문을 내기로 하였으나 중간에 리플렛으로 계획이 수정되었고 (그것 때문이지는 않지만) 정책팀 내에서조차 내용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채 일이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정책회의에 관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정책회의 초반에는 주로 작년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총여상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총여상에 대한 고민은 잘 정리되었다고 본다.(시타의 글이나 그 외 관련 글들을 보기 바란다) 전반적인 정책회의에 대한 평가는 투자한 시간에 비해 그리 생산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그 시간들이 의미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고의 효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개념인가도 안다. 선거에 처음 참가한 '나'-여기서는 雲을 가리킴-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초반에 논의된 것들(특히 총여상이나 '다양성'에 대한 논의들)이 실제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덧붙여 정책회의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만은 않았다. 기조나 모토 · 슬로건 논의 외에 구체적인 정책이 생산되어야 할 때는 6-7명 정도가 참석하는 것이 적당한 것 같다.

너무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지 않았다 싶다. 약간 어렵다 싶고 안풀린다 싶으면 선배들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델타의 선거 개입을 문제시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머리 속에 어느 샌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일뿐)

총여 선거에서 정책은 학내 여학생들 요구와 바램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통하는 언어, 내용을 밖으로 던져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분명 고민 지점들이 다름에도 이에 대한 확인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선거 준비 자체가 너무나 촉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우리 내부에만 있지 않았나는 반성도 든다. 정책, 공약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여학생 실태 조사는 정책이나 공약이 아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항상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생각맡은 선본 전체에서 다소 고립된 채 일을 진행하였던 것 같다. 새내기나 정책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정책이 공유되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는 과정에서 말을 새로이 풀어내는 작업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정책에 대한 모니터도 일부분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모아지고 정리되지 않았다. 선본회의에 이런저런 일로 열심히 참석하지 않은 탓도 크다. 다음번에는 조직국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튼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것인지, 뭘 해야하는지를 알도록 해준 하나의 '기회'였다고 본다.

자치는 '자치'단체나, '자치질서'로 가는 총여학생회라고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